

# 전국 최초 「농어민 공익수당」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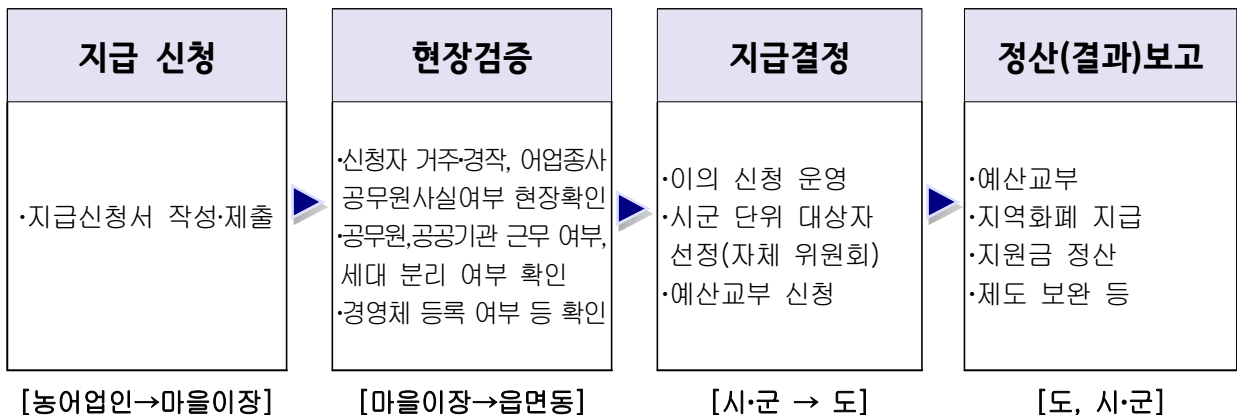
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·다원적 가치를 유지·증진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'농어촌 공익수당'을 도입·지급함.

## □ 추진배경

- 식량공급, 환경보전, 전통문화 계승 등 농어업·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·증진
- 농수산물 개방과 수급불안이 농가소득 정체 및 도·농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

## □ 사업개요

- 지급대상 : 농어업·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·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·임업인
  -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·임업에 종사한 사람
- 지급액 : 연 60만원(상·하반기 균분지급)
- 지급방법 :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
- 지급결정 절차



## □ 주요 추진상황

-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공포·시행 : '19. 10. 17.
-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·의결 : '19. 11. 1
  - 심의안건 : 지급액, 지급시기 및 방법, 마을별 정례교육 등
- 시군, 읍면동 직원 대상 권역별 교육 : '19. 12. 18.~27.
-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: '20. 1. 20.~3. 6.
- 지급대상자 결정 및 공익수당 지급 : '20. 3. ~ 5.
- 농어민 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: '20. 5.
-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: '20. 10. 17.



## □ 주요성과

- '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: 191,541명
  - 농업 181,473명, 어업 10,002명, 임업 66명
- 코로나19로 힘든 농어민을 위해 상반기 60만원 일시 지급
  - 당초 상·하반기 균분 지급 → 상반기 일시 지급으로 전환
  - 위축되었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농어민 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  - 지급대상자 관리 및 적격자 심사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('20.5.)
  - '21년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군, 읍면동 직원 교육 실시('20.8.)